

잇단 대형화재 사고로 찾는 사람 부쩍 늘고  
10년 사용연한에 교체시기 겹쳐 구입 급증



# 소화기 품귀 '아우성'

구매 문의 폭주 속 가격도 경중  
중국 춘절에 수입 사실상 중단  
제조공장 휴일 반납 야간 가동  
사전주문 밀려 물량 못 맞춰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원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금홍(여·85)씨는 최근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접한 뒤 원룸 내 분말소화기 7대를 교체하려 했지만, 물량이 없어 구하지 못했다.

분말소화기 구매를 위해 아들과 함께 소방방재물품점을 찾은 정씨는 분말소화기의 재고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정씨는 서둘러 다른 소방물품점을 찾았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주부 김민주(35·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도 가정용 소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마트 직원이 최근 소화기를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면서 "소화기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화재들이 잇따르면서 광주·전남에서 분말소화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화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데다, 대형 화재 공포로 소화기를 찾는 시·도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연휴인 춘절마저 겹치면서 중국산 소화기의 수입도 사실상 중단돼 당분간 소화기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소방용품 관련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광주·전남 소방용품 전문매장에서 소화기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소화기 제조공장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야간근무에 나서는 등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사전 주문이

밀려 있어 소화기 품귀현상이 언제 해소될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육선, G마켓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도 소화기를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물량이 없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북구 윤암동 공구의 거리에 있는 한 소방방재물품에는 소화기를 판매하느냐는 전화가 하루에도 30통이 넘게 걸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소화기를 찾는 사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소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소방방재물품업체를 운영하는 이현근(59)씨는 "19년 가까이 소화기를 팔았지만 이런 대란은 처음 본다. 현재까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소화기 주문이 3000개 이상 밀려있다"면서 "공장에서 물량부족으로 납품을 미루고 있어 그동안 거래처들과 쌓아온 신용을 잃을까봐 요즘은 주문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면서 소화기 값도 경중 뛰었다.

지난해까지 소방방재물품점에서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 사이에 거래되던 3.3kg 국산 분말소화기는 현재 2만5000원에서 3만원선까지 올랐다.

소화기 점검 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점검 자체를 유보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30곳은 보호거리가 20m 이내, 연면적 33㎡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화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사용기한을 넘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소화기 품절로 교체를 하지 못한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사용기한을 넘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소화기 품절로 교체를 하지 못한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이와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3·1절 앞두고 5·18기록관 외벽에 내걸린 '시민군 태극기'



3·1절을 맞아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외벽에 내걸린 대형 태극기(가로 4.5m×세로 3.5m)를 지나가는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이 태극기는 5·18 당시 계엄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군용차량에 깃발한 시민군의 태극기를 확대 인쇄한 것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지역 여대생도 '미투' 운동 동참

SNS에 선배 성추행 폭로

광주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선배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too : 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했다.

광주 한 대학 사회관계장서서비스(SNS) 게시판에 최근 '저는 A 대학 재학 중인 평범한 여학우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아직 많은 용기도 없고 손가락질, 보복 등이 두려워 익명으로 하게 됐다"며 선배로부터 당한 성추행 내용을 고백했다.

이어 "학교활동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과 술자리가 잦았는데 어떤 하루는 우연히 모 선배 옆에 앉게 됐다"며 "그런데 술을 마시며 자꾸 제 팔뚝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으시고 나중에는 그냥 허벅지 위에 손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

른 여자 선배가 눈치를 채고 건네준 쿠션을 다리에 올리고 그 위에 제 손을 올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쿠션 위의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당황했다. 어린 딸아이 2명이 있고 사진도 보여줬던 선배였다"며 "이건 흔히 겪는 성희롱인데 많은 여학우가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생은 또 남학생들에게서 듣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남학우들한테만 듣는 말인데 '살 좀 빼라', '엉덩이 또는 허벅지 좀 봐라, 엄청나게 두껍다', '턱살 보라. 그만 좀 먹어라' 등의 말을 쉽게 한다"며 "심지어 어떤 선배는 '살이 포동포동 말랑말랑 써서 껌 안기 좋으냐'고 저를 안고 있던 여학우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성추행' 조민기 형사 입건 피해자 10여명으로 늘어

경찰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52)씨를 형사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조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전날까지 8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0여명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확보되는 피해 진술에 따라서 적용 혐의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계획한다. /연합뉴스

## 훈령 쫓는다며 스님이 집기 파손

○~50대 스님이 잠실과 훈령을 쫓는다며 폐초등학교와 교회 집기 등을 파손해 경찰서행

○~27일 곡성경찰청에 따르면 스님 이모(53)씨는 지난 18일 곡성군 입면의 한 교회 신발장 등을 둔기로 부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폐초등학교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고 운동장 잡풀에 불을 붙였다는 것.

○~경찰에서 인건 한 암자의 주지라고 밝힌 이씨는 "고향인 곡성 동학산에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신이 명령을 내려 잠신을 쫓기 위해 기물 등을 없애려 했다"고 설명.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대통령 비방 나서 적발된 부산 50대

## 5·18 관련 낙서도 추가 확인

지난 21일 부산 북구지역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가 적발된 50대가 5·18과 관련된 낙서도 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장서서비스(SNS)에는 부산의 한 중학교 담벼락에 '5·18은 북한 특수군의 난동이다'고

적힌 낙서를 촬영한 사진이 지난 26일 올라왔다.

이 사이트에는 해당 중학교 인근의 한 고등학교 정문 쪽에 그려진 김구 선생의 벽화 위에 누군가 파란색 펜으로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반역자'라는 낙서를 한 사진도 올라왔다. /연합뉴스

경찰은 낙서가 추가로 발견되자 지난 21일 검거된 A(54) 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의 집 주변 도시철도 역사 2곳과 중학교 2곳, 도서관 담벼락 등 6곳에 "문재인과 함께라면 적화통일 문제없어"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당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5·18관련 낙서를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구 선생과 관련한 낙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h3>영광주택매매(급매)</h3> <p><b>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뒷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b></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b>1억 2천</b> 매가 <b>9천 4백</b></p> <p><b>주인직매 010-6670-9800</b></p>	<h3>경매물건 (추천)</h3> <p><b>*담양군 담양읍 (무인텔)</b> 감정:30억2천4백 최저:16억9천</p> <p><b>*남구 주월동 (근린주택)</b> 감정:4억5천3백 최저:4억5천3백</p> <p><b>*남구 노대동 (상가건물)</b> 감정:4억8천7백 최저:3억4천1백</p> <p><b>010-6670-9800 062)382-5500</b></p>	<h3>경매교육 (2월초 개강)</h3> <p><b>1) 이론 실전반</b>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b>2) 실전 투자반</b>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b>3) 경매 평생반</b>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p> <p><b>경매물건 추천</b></p> <p>① 광산구 용동 (공장) 감정가 9억6천7백 → 최저가6억7천 7백 토지:500평 건물:445평</p> <p>②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p> <p>③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p> <p>[ 사무직 (여)경력 구함, ] [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p> <p><b>010-6670-9800 062)382-5500</b></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p>1) 남구 노대동(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p> <p>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p> <p>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p> <p>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p> <p>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p> <p>6)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 4억5천 3백 → 최저 4억5천3백</p> <p>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13억1천9백 → 최저13억1천6백</p> <p>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4천7백 → 최저가 3억6백</p> <p>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p> <p>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p> <p>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p> <p><b>A.P.T·주택·공장·토지 (기타)</b></p> <p>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p> <p>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1억 7백</p> <p>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54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 5천8백</p> <p>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 2천6백</p> <p>⑥ 서구 벽진동 (토지) 222평 감정 8천6백 → 최저 8천6백</p> <p>⑦ 광산구 오산동 (공장) 감정 18억3천6백 → 최저 12억8천5백</p> <p>⑧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 2억6천7백 → 최저1억 8천7백</p> <p>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p> <p>⑩ 광산구 박호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p> <p><b>010-6670-9800 062)382-5500</b></p>
--	--	---	--